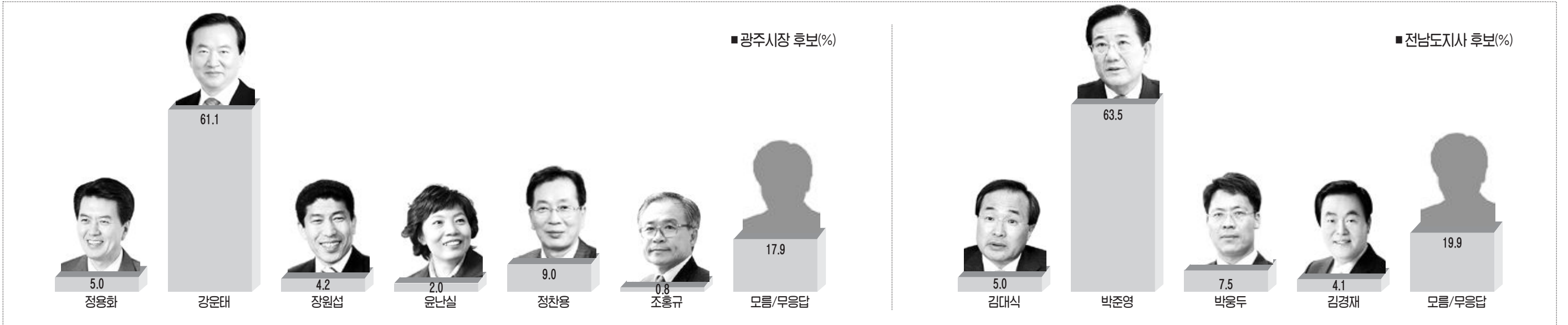


6·2 지방선거 지지도조사 <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

광주시장 강운태 압도적 선두 전남지사 박준영 1위 교수



광주일보·(주)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른 정당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앞선 지지율로 선두를 고수했다. 2위 후보와 무려 52.1%~56%포인트 가량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이 민주당 텃밭임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름·무응답 층이 10명 중 2명에 달한데다 민주당 지지도 또한, 역대 선거 정당 지지율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다른 정당 후보들이 얼마만큼 추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사건 발표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 '북풍(北風)', '노풍(盧風)' 등 선거 관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월보다 정찬용 6.7%P·정용화 3.5%P 상승 김대식 영광·무안, 박용두 여수·나주서 10% 넘어

강운태 후보가 76.4%를 기록했으며, 이어 한나라당 정용화 1.9%,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 1.7%,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 1.1% 순이었다.

전남지사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63.5%의 지지율로, 2위인 민주노동당 박용두 후보(7.5%)를 무려 5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5.0%)와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4.1%)가 박 후보를 쫓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모름·무응답 층은 19.9%였다.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전 연령층에서 60%대 안팎의 고른 지지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67.3%의 지지율을 얻었다.

박 후보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50~80%대의 고른 지지를 얻었고, 이 가운데 해남·완도·진도·신안지역에서 가장 높은 81.1%의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무소속이 강세지역이었던 나주(51.7%)에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박용두 후보는 동부권과 농민단체가 강세인 나주에서 1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다. 여수(14.1%)와 나주(11.4%), 광양(11.4%), 곡성·구례(12.4%)에서 지지율 10%를 넘어섰다. 반면 장흥·강진·영암지역에서는 지지율이 '제로'였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고향인 영광·무안·함평에서 11.2%의 지지율을 얻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했다.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는 광양(12%)에서 10%를 넘기는데 그쳤고, 나주와 고흥·보성, 곡성·구례에서 전혀 지지를 얻지 못했다.

한편, 전남지사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 가량(68.3%)이 민주당 박준영 지사가 당선될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민노당 박용두 후보(2.4%),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1.9%), 평화민주당 김경재(1.0%) 순이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여론조사 어떻게

광주일보는 이번 여론조사를 지난 16일 서울지역 여론조사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대상 인원을 할당한 후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추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시스템) 방식을 사용했다. 응답률은 광주 14.5%, 전남 22.2%였다.

이번 조사는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기본사항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지지도, 당선 가능성, 투표의향, 지지정당 등 총 10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지지도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샘플은 광주·전남 각각 500명이었다. 특히 교육감 지지도 조사의 경우, 아직까지 상당수 후보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름과 함께 대표경력을 사용했으며, 후보들의 이름을 돌아가며 부르는 '로테이션'방식을 채택했다.

응답자는 광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244명(48.7%)과 256명(51.3%)이었으며, 거주지별로는 ▲동구 42명(8.3%) ▲서구 104명(20.8%) ▲남구 77명(15.5%) ▲북구 166명(33.1%) ▲광산구 111명(22.3%)이다. 전남의 경우 거주지별로 목포시 61명(12.1%), 여수시 75명(15%), 순천시 66명(13.2%), 나주시 25명(5.0%), 광양시 34명(6.9%), 해남·완도·진도·신안이 60명(11.9%), 고흥·보성 35명(7.0%), 장흥·강진·영암 39명(7.7%) 등이 각각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광주와 전남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다.

광주시장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강운태 후보가 61.1%의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가 9.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5.0%)와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4.2%),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2.0%), 평화민주당 조흥규 후보(0.8%) 등이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펼치고 있다. 모름·무응답 층은 17.9%였다.

지난 2월 본보가 실시했던 광주시장 후보 여론 조사와 비교해서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정찬용 후보가 국민참여당에 입당한 뒤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단일화하면서 지지율을 무려 6.7%포인트 끌어올렸다.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도 지지율이 3.5%포인트 상승했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와 평화민주당 조흥규 후보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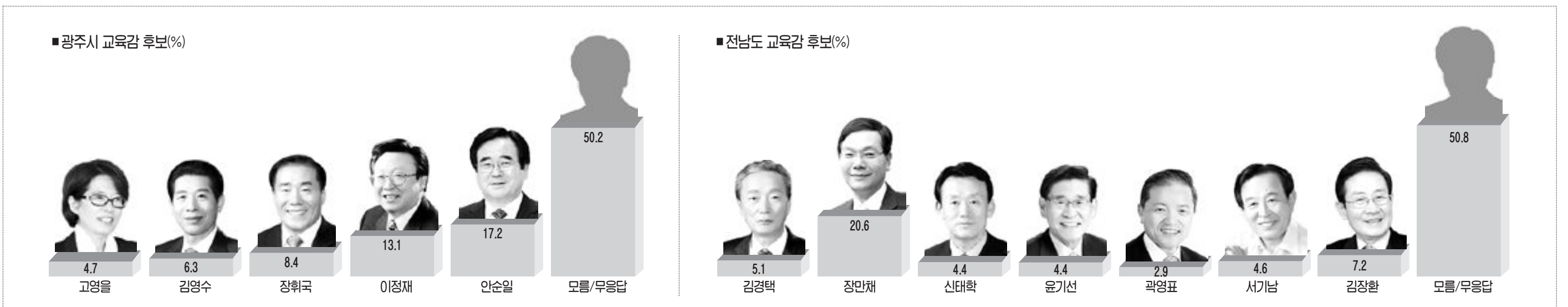
연령별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강운태 후보가 전 연령대에서 60%대의 지지율을 보였고, 이 중 50세 이상 지지율이 68.7%에 달했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40대(10.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강운태후보가 북구(57.3%)와 광산(59.0%)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반면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동구(6.7%)에서,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북구(5.9%)와 광산구(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동구에서 21.4%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동구가 국민참여당의 새로운 강세 지역으로 떠올랐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남구(4.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주시장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광주시교육감 안순일 17% 전남도교육감 장만채 20%... 무응답 50% 변수



광주·전남 교육계를 이끌 시·도 교육감이 올해 처음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만 정당 공천은 하지 않는다. 각 후보들의 투표용지 이를 게재순위는 지난 14일 정당과 무관하게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프리미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크게 떨어져 '민주당 기호(2번)'와 같은 위치에 이름을 올린 두 번째 순번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낼 지역 교육계의 '대통령'을 뽑는 만큼 교육공약과 철저한 인물 검증 등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한다는 게 교육계의 조언이다.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순일 현 교육감(17.2%)과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13.1%)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국 시 교육위원(8.4%)과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6.3%)이 뒤를 이었고,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은 4.7%였다.

지난 2월 5~9일까지 5일간 실시했던 여론 조사와 비교해선 안순일 현 교육감과 이정재 전 총장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에서 4.1%포인트로 벌어졌고, 장휘국 교육위원은 4.4%포인트가 올랐다.

연령별 지지도에선 40대와 50세 이상은 안순일 교육감을, 39세 이하에선 이정재 전 총장(13.4%)과 안 교육감(13.3%)이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 지지도에선 서·북·광산구는 안 교육감을, 동·남구는 이 전 총장을 높게 지지했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순일 교육감

광주 민주 지지→안순일, 한나라 지지→이정재

전남 김장환·서기남·신태학 단일화땀 판세 요동

(22.2%)을,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이정재 전 총장(56.6%)을, 기타 정당 지지자들은 장휘국 교육위원(13.0%)을 높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별 지지 응답자의 투표의향 질문에는 안순일 교육감의 지지자 중 20.1%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정재(13.1%)·장휘국(9.1%)·김영수(6.9%)·고영을(3.5%)순이었다.

다만 '모름/무응답'이 50.2%로 나타나 이 후 선거과정에서 부동층이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안순일 교육감이 22.7%였으며, 이정재(10.7%)·장휘국(5.5%)·고영을(4.0%)·김영수(3.2%)순이었다. 지역별 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이정재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았던 동·남구를 포함해 전 지역에서 안 교육감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전남도교육감 후보 지지도에서는 장만채 전 순천대 총장이 20.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장환 전 교육감은 7.2%로 두 번째 순위

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 5.1%, 서기남 전남도교육위원 4.6%,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신태학 전 여수교육장 각 4.4%, 광영표 전 여수정보과학고 교장 2.9%순이었다.

최근 후보 단일화설이 거론되고 있는 김장환·서기남·신태학·윤기선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면 20.6%로, 선두 장만채 전 총장의 지지율과 같았다.

특히 이번 지지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50.8%가 '모름·무응답'이라고 답해 도 교육감 후보 4명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박빙의 '2강 대결 구도'로 흐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여론 조사와 비교해선 당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만채 전 총장을 제외하고, 김장환 전 교육감의 지지율이 1.9%포인트 감소했으며, 김경택 전 총장은 0.9%포인트가 떨어졌다. 신태학 전 교육감도 0.8%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장만채 전 총장이 목포(12.0%), 여수(20.0%), 순천(46.6%), 광양(20.4%), 해남·완도·진도·신안(13.3%), 고흥·보성(20.7%), 무안·함평·영광(20.8%), 담양·화순·장성(22.7%)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장환 전 교육감은 나주(19.6%)와 장흥·강진·영암(15.6%)등에서 지지율 선두에 올랐다.

각 후보별 지지 응답자의 투표의향 질문에는 장만채 전 총장의 지지자 중 2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김장환(8.9%), 김경택(5.9%), 윤기선(4.8%), 서기남(4.4%), 신태학(4.2%), 광영표(1.9%)순이었다.

한편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장만채 전 총장(16.0%)에 이어 김장환(9.3%), 신태학(5.1%), 윤기선(3.7%), 서기남(3.0%), 김경택(2.3%), 광영표(1.1%)순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